

목차(目次)

I. 대통령과 최서원 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1. 공소 내용의 허구성과 부적절함에 대하여 1

2. 최서원은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과 한국문화재단 부원장이 아닙니다 2

3. 최서원은 대통령의 개인집사에 불과 3

4. 최서원은 30 여 년간 ‘초이유치원’을 운영한 유치원 원장 5

5. 최서원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7

II. 미르재단 설립 과정의 오해와 진실 8

1. 검찰이 밝힌 공소 내용의 허구성과 부적절함에 대하여 8

2. 대통령을 비롯해 기업 회장, 전경련 관계자들은 안종범 진술을 부인 9

3. 안종범 진술에 대한 합리적 의심 11

4. 검찰은 방기선 행정관이 작성한 개인서류를 청와대 정식 공문서로 오해 13

5. 검찰은 안종범과 차은택이 통화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 안 해 15

6. 검찰은 안종범과 차은택의 유착 및 공모사실을 이미 파악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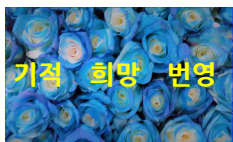
7. 차은택 진술을 믿지 못하는 이유 18

III. K 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의 오해와 진실 19

1. 검찰이 밝힌 공소 내용의 허구성과 부적절함에 대하여 19

2. K 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사람은 김필승 이사 19

3. 안종범은 K 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과 114 회 통화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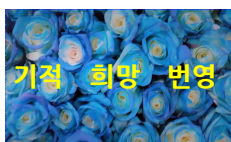
「거짓과 진실」

서울 강북구 솔매로 29, 301호(미아동)

대표 기자 우종창(cell:010-5307-5472)

E-mai : wjc57@naver.com

IV. 정유라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수수의 오해와 진실	23
1. 특검이 밝힌 공소 내용의 허구성과 부적절함에 대하여	23
2. 2013. 4.경에 있었던 전국승마대회의 진실	23
3. 문체부 국장 노태강이 인사 조치된 것은 승마협회 비리와 무관	24
4. 청와대에서 승마와 관련하여 지시한 내용의 진실	27
5. 거짓 소문의 진원지인 박원오의 정체와 그 진술의 신뢰성	28
6. 박원오와 대한승마협회장 박상진 간의 은밀한 돈거래	30
7. 박상진이 이재용에게 편찬 받은 사연	31
8. '올림픽 출전을 위한 승마선수 육성' 보고서 작성자는 안계명	33
9. 코어스포츠가 삼성전자에서 받은 용역비 내역은 독일 세무당국에 신고	34
V. 안중범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하여	35
1. 1심, 2심의 판단과 이재용 2심 판단의 모순	35
2. 업무수첩의 총 권수에 대해 1심, 2심은 판단하지 않아	36
3. 업무수첩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37
VI. 마치는 글(전원합의체 회부의 필요성)	40



「거짓과 진실」

서울 강북구 솔매로 29, 301호(미아동)

대표 기자 우종창(cell:010-5307-5472)

E-mai : wjc57@naver.com